

서울에서는...

흔들리는 꿈

대전에서는...

깨진 꿈



11일 저녁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시리아와의 아시안컵 예선 조별리그 B조 5차전에서 전반 선취골을 성공시킨 조재진이 환호하고 있다.

독수리 홈런 3방에 호랑이 PO행 좌절

KIA, 한화에 4-6 무릎



■ 준플레이오프 3차전

호랑이의 포효가 대전구장에서 멈췄다. KIA는 11일 대전구장에서 벌어진 2006프로야구 한화와의 준플레이오프(3전2선승제) 최종 3차전에서 막판까지 쫓고 쫓기는 타격전 끝에 4-6으로 무너졌다. 2004년 이후 2년 만에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KIA의 이날 패배로 준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의 징크스를 깨는데도 실패했다. 역대 15차례 치러진 준플레이오프에서 1차전을 이긴 팀이 100%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는데 이번에도 첫판을 따낸 한화의 승리로 시리즈가 마감된 것. 이날 경기는 16개의 안타를 주고받는 타격전으로 흘렀다. 하지만 한화의 대포가 KIA의 소총보다 강했다. KIA는 3회 한화 김민재(1점)와 이범호(3점)에게 두 방의 홈런을 허용했지만, 곧바로

시종일관 맥빠진 경기...진땀 본선행

■ 아시안컵 축구 예선

한국 축구의 힘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베이백호는 중동의 '복병' 시리아와 고전 끝에 비겨 간신히 아시안컵 본선행을 확정했다.

김 베이백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은 11일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07 아시안컵축구대회 예선 B조 5차전 시리아와 홈 경기에서 전반 8분 조재진이 선제 헤딩골을 뽑아 리드를 잡았으나 전반 17분 한 번의 역습에 동점골을 내줘 1-1로 비겼다.

3승2무(승점 11)가 된 한국은 한 경기를 남기고 시리아(1승2무2패, 승점 5)와 승점 격차를 6으로 유지해 내년 7월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공동 개최하는 아시안컵 본선 티켓을 따냈다.

시리아와 역대 전적은 2승1무1패가 됐고 베이백호는 출범 이후 2승2무1패를 기록했다. 베이백호는 이날까지 다섯 차례 공식 경기 가운데 약체 대만 외에는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한국은 다음 달 15일 이란과 예선 마

한국, 베스트 가동 불구 시리아와 1-1 수비 허점·골 결정력 등 문제점 여전

지막 원정 경기를 남겨놓고 있다. 이란도 대만과 원정경기에서 알리 카리미의 두 골로 2-0 승리를 거둬 3승2무로 본선에 안착했다. 본선에 오른 팀은 한국, 이란과 사우디 아라비아, 호주, 카타르 등 5개국이다. 세대교체를 실행했던 지난 8일 가나전과 달리 부상 중인 박지성, 이천수를 빼면 사실상 베스트를 모두 가동했지만 태극호의 위용을 되찾지 못한 한 판이었다. 스티븐에 최성국, 조재진, 설기현을 배치하고 김두현, 김정우, 김남일로 삼각형 중원을 구성한 뒤 이영표, 김동진, 김상식, 송종국으로 포백을 짰 한국은 초반 5분 탐색전을 펼친 뒤 최성국의 돌파로 포문을 열었다. 최성국은 수비진영에서 김상식이 대각선으로 길게 연결해주자 왼쪽 측면을 뚫고 지체없이 크로스를 올렸다. 먼 쪽 골 포스트 앞

에서 돌고래 점프로 솟구친 조재진은 방아 찧기 헤딩슛으로 그물을 출렁였다. 독일월드컵부터 대표팀의 간판 스트라이커로 자리 잡은 조재진은 A매치 27경기 출전에 8호골을 쏘아 올렸다. 베이백호는 그러나 9분 뒤 수비 라인에 심각한 허점을 노출하며 빠아픈 동점골을 내줬다. 마후드 알 아메나의 로빙 스투파스에 일자 수비 벽이 완전히 무너졌고 지아드 차보가 골키퍼 김영광과 1대1로 맞섰다. 골문을 박차고 나온 김영광은 가슴으로 불을 쳐냈지만 마헤트 알 사에드가 어정쩡하게 흐른 볼을 낚아챈 뒤 페널티지역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가 대신 골문을 지키던 수비수 사이로 절묘한 오른발 슛을 꽂아 네트를 갈랐다. 대표팀은 전반 20분에도 차보에게 돌파를

허용해 역전골을 내줄 뻔했다. 차보의 슛을 김영광이 가까스로 막아내 위기를 넘겼다. 전반 31분과 41분에는 김두현이 바운딩 슛과 땅볼 프리킥으로 골문을 겨냥했지만 골키퍼 모사브 발호우스의 선방에 막혔다. 후반에도 선수를 바꾸지 않은 베이백 감독은 집중 연마한 세트 플레이와 측면 크로스에 의한 고공전으로 승부를 띄웠지만 공격 방식이 너무 단조로워 밀집 방어를 펼친 시리아 수비진을 허물지 못했다. 후반 8분 최성국의 크로스를 김두현이 헤딩으로 꽂았지만 옆구리를 출렁이는 데 그쳤다. 조재진, 최성국의 연속 슛이 모두 크로스바를 넘어가 기회를 놓친 베이백호는 후반 28분 최성국이 골키퍼와 1대1로 맞서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지만 골키퍼 키를 넘긴다는 마무리 슛이 크로스바를 훌쩍 넘어갔다. 또 후반 30분에는 조재진의 땅볼 중거리슛이 골키퍼에 맞고 굴절돼 나갔고 종료 2분전 날린 왼발 터닝슛은 오른쪽으로 너무 꺾여 포스트를 빗나갔다. 베이백 감독은 끝까지 선수를 한 명도 바꾸지 않고 처음 뽑아낸 전술을 고집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1일 대전 한밭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3차전 KIA-한화의 경기. 7회초 2사 2.3루에서 2타점 적시타를 때린 기아 이종범이 빠른 발로 2루에 세이프되고 있다.

KIA, 또 포스트 시즌 악몽

KIA가 또 다시 포스트시즌 악몽에 고개를 떨궜다. 11일 한화와의 준플레이오프 3차전서 패한 KIA는 유독 포스트시즌과 인연이 없다. 지난 2001년 해태에서 뜻을 바꿔먹은 KIA는 2002년부터 3년 연속 포스트시즌에 진출했으나 한국시리즈엔 단 한 차례도 오르지 못했다. 전적은 2승8패. 지난 2002년엔 정규리그 1위를 질주하다 삼성에 막판 추격을 허용한 뒤 플레이오프서 LG에 덜미를 잡혔다. 2003년에도 현대와 치열한 1위 다툼을 벌이다 시즌 막판 플레이오프행에 오른 뒤 SK에 어이없는 3연패로 통탄의 눈물을 흘렸다. 준플레이오프와 얽힌 악연은 더하다. 94년(해태)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준플레이오프 진출한 KIA는 각각 한화

세계 최강 브라질 축구대표팀을 상징하던 'R'자가 사라지고 있다. 로마리우(Romario), 히바우두(Rivaldo), 호나우두(Ronaldo), 호나우지뉴(Ronaldinho), 호베르투 카를루스(Roberto Carlos) 등 1990년대 이후 브라질 축구를 상징하는 대명사인 'R'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고 10일 브라질 언론이 전했다. 지난 독일월드컵 이후 동가 감독이 새로 사령탑에 오른 가운데 모두 네 차례 친선 경기를 치르면서 'R의 몰락'은 뚜렷하다. 에콰도르와 친선경기에서 세계 최고의 테크니션으로 꼽히는 호나우지뉴마저 스타팅 멤버에서 제외되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 동가 감독은 호나우지뉴의 포지션에

브라질 축구 'R의 몰락'

호나우두(Ronaldo)·카를루스(Roberto Carlos) 이어 최근 호나우지뉴(Ronaldinho)마저 부진-언론들 혹평

카가를 선택하고 펠레 넘버인 10번을 부여주었다. 독일월드컵 직후 대표팀 선발에서 일시 제외됐다가 복귀한 호나우지뉴는 지난 7일 열린 쿠웨이트와 친선경기까지 합쳐 통산 12경기 동안 단 한 골도 넣지 못해 '고

장난 야생마'로 전락했다. 이제 브라질 축구대표팀 스타팅 멤버에 서 살아남은 'R'은 '제 2의 펠레'로 평가받는 호비뉴(Robinho) 단 한명 뿐이다. 브라질 언론은 특히 호나우지뉴에 대해 싸늘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호나우지뉴와

호비뉴를 직접 비교하면서 "동가 감독 부임 이후 호비뉴는 4경기에 모두 뛰면서 1골을 기록한 반면 호나우지뉴는 2경기에 나서 눈에 띄는 활약을 거의 보이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현 대표팀에서 호비뉴만큼 공을 잘 다루는 선수는 없다. 속도와 드리블, 창조력 등에서 최고"라는 동가 감독의 발언을 곁들여 호나우지뉴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동가 감독은 에콰도르와의 경기가 끝난 뒤 브라질로 귀국하지 않고 곧바로 유럽으로 날아가 대체요원을 물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월드컵 8강전 탈락으로 브라질 축구대표팀에 불어닥친 거센 세대교체 바람에 'R'이 속수무책으로 휩쓸려가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